

안성지부 제1회 안성양돈인대회 개최

본회 안성지부(지부장 : 박광수)는 앞으로 다가올 지방자치제에 있어서 축산정책, UR협상에 의한 수입개방의 대처방안 등 양돈인 스스로의 자구책과 안성지역 양돈인들의 권익보장과 단합을 증진키 위해 제1회 안성양돈인대회를 개최했다.

지난 3월 12일 오전 11시 안성군 군민회관에서 개최된 이날 대회에는 본회 이명복부회장, 노영한전무, 이 지역 각급 기관장, 축산관련인, 업계대표, 양돈인 등 130여명이 참석하여 진지 하고도 화목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박광수 지부장은 대회사를 통해 「작년과 올해 양돈산업은 지속적 호황속에서도 많은 양돈인들은 UR협상 돼지고기수입 등으로 불안을 금치 못했다」고 전제하고 「우리 양돈인은 생산원가를 절감하고 우수한 돼지고기를 생산하여 수입에 의한 불안을 우리 스스로 퇴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오늘 양돈인 대회를 계기로 우리 양돈인 스스로 뭉쳐 우리 삶을 지켜나간다면 우리의 앞날에 밝은 미래의 양돈인상이 이룩되리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안성양돈인대회에서 전동용회장은 이명복 부회장이 대독한 축사에서 「제1회 안성양돈인대회를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말하고 「세계개선, 유통개선, 정부에 대한 정책개선, 수입개방에의 대처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양돈인대회를 통하여 본회 회원은 물론 모든 양돈인들이 협회를 통해 하나로 뭉쳐야 하며, 하나로 된 힘은 어떠한 어려움이나 외부압력도 헤쳐 나갈 수 있고 양돈산업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본회 노영한 전무는 최근 양돈업현황에 대한 설명과 앞으로의 양돈경기전망에 대한 설명을 했다.

또한 제1회 안성양돈인대회에서는 UR협상 등 계속되는 농축산물 수입개방 압력과 물가불안정상으로 인한 생산비 상승 등 양돈산업이 당면하고 있는 심각한 현실을 직시하고 양돈산업 발전과 생존권 보호, 합리적인



축산정책 및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 결의문에서 ▲양돈인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생산성 향상과 원가절감을 위한 양돈생산기반조성, 저장, 가공산업육성, 유통개선 및 돈육수출증대를 위한 정부의 금융상의 투융자 확대 등 제반대책에 대한 정부의 노력 촉구 ▲재벌 등 농외자본의 축산업 참여 규제, 양돈업 허가의 상한선이 설정된 축산업의 지속으로 농축민의 영구적 생활기반구축 보장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생산원자재의 관세 부가세 면세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촉구하고 ▲돈육품질향상과 경영의 합리화를 추구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이러한 결의사항 관철을 위하여 모두가 앞장설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양돈인대회에서는 안성지부 2대 지부장을 역임하고 양돈인 단합과 발전에 기여한 박선안씨(광동축산)에게 본회에서 공로패를 수여했다. 또한 박광수 지부장은 안성지역의 양돈정책 돈육소비홍보 등에 기여한 김제훈씨(안성군청 산업과), 김영한씨(안성농협 판매계), 김현철씨(백계숫불갈비)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이날 오후에는 정부정책에 관한 강의(강사 : 경기도청 축정과장 전기영), 최근 발생이 많은 돼지의 주요 질병(강사 : 한국바이엘화학 학술부장 예재길), 모돈의 생산성 향상 방안(강사 : 제일제당(주) 양돈P.M과장 이병하) 등에 관한 세미나가 있었다.